

국가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방향

신인균*

〈목 차〉

- I. 서론
- II. 예상되는 주변국의 해양에서의 위협들
- III. 한반도 주변국의 해군력
- IV.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방향
- V. 결론

I. 서론

냉전구도가 해체 된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의 독주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911테러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두 군데에서 전쟁을 치렀고, 막대한 전비를 쏟아 부으며 국력은 약해졌다. 급기야 리먼브라더스사의

*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 본 논문은 제15차 함상토론회(2012. 6. 15)에서 발표한 것임.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키기에 충분했다. 때를 같이하여 경제를 급성장시켜 생기는 자금으로 그동안 “낙후된 군”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중국군이 자신들의 각종 무기체계를 현대전에 맞는 무기로 바꾸어 가면서 중국의 경제력과 함께 군사력도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제 중국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G2로 성장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에게 당당하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또 일본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키면서 군사력 강화와 보통국가화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센카쿠열도 등 중국과의 해상분쟁과 동북아의 지역패권을 다투는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전에서 사담후세인이 너무나 쉽게 잡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역에서 탈레반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미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보게 되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으로 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20만 명이나 보유하며 비정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해군 분야에서는 소형잠수함을 다량 보유하여 한국해군에 비해 역전 불가능한 수준까지 벌어진 수상함 전력을 만회하고 전시 해상수송로를 마비시켜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해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핵을 개발하고 그 핵을 투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려, 전면적 정규전 보다는 비정규전과 WMD(대량살상무기)를 통한 군사력 우위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해군은 천안함사태와 같은 북한의 대담하고도 악랄한 도발은 물론,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책동에 더해 중국과의 이어도수역 분쟁이 예상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더 강하게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해양주권 위협상황과 함께 주변국의 해양군사력 변화를 알아보고 우리 해군이 갖추어야 할 전력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본다.

II. 예상되는 주변국의 해양에서의 위협들

1. 미국의 신(新)국방정책과 해군력변화

미국 국방부는 2012년 1월 5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

안: 21세기 미국 국방의 우선순위'(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라는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8페이지의 짧은 보고서지만,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안보를 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이다. 이 새로운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과거 대서양을 미국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분류했던 것을 서태평양, 동아시아, 인도양, 남아시아지역에 미국의 경제와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연계되었다고 보면서 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미국의 관심이 이동되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의 태국,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과 함께 인도양의 인도 등과 군사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중국의 전력투사를 견제하겠다는 모양새다. 이에 미국은 항모전단 1개(CVN-76 로널드레이건 항모타격전단)를 태평양 지역에 추가 배치하여 중국의 A2/AD전략¹⁾에 대비하는데 결국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그 핵심대상은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은 신국방정책에서 육군과 해병대 등 지상군 병력을 10만명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전략이 마치 지상군은 포기하고 해군과 공군전력으로 재편되어 동맹국들의 안보 중 지상군 전력은 동맹국에게 더욱 큰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우리 군도 육군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상군 감축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9·11 이후 시작된 대테러전과 이라크전 등 2개의 전쟁을 치르며 증강했던 병력을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린 것임을 알 수 있다. 2000년 미육군과 해병대의 병력은 642,000명이었는데, 2011년 현재는 779,000명이다.²⁾ 현재의 미 지상군 병력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137,000명이 많은데 10만명이 줄더라도 대테러전 이전보다는 지상군 병력이 37,000명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지상군 전력에 대한 걱정은 염려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신국방정책과 관련한 또 하나의 오해는 미국이 태평양지역에 항모전단을 하나 더 추가 배치하였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해군력과 공군력은 오히려 더 증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사군도에서는 이미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호국들의 침예한 도서영토분쟁이 발화되었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자신감

1) 미국 해군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접근 혹은 지역적 접근거부(Anti-Access/Area Denial)전략.

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 2011

증가로 센카쿠열도 분쟁에 더해 난세이제도의 관통기동훈련 등 중일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는 여전히 높은 강도로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력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까지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형편이 되었고, 7함대 전력도 남중국해 연안국들과의 잦은 연합훈련에 차출되기 때문에 한국해군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더 자주적인 역량강화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미국의 신국방정책에 따른 해군력의 재편은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안보수요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미7함대마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전적으로 집중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해군력 변화에 따라 더욱 강한 해군력 보유를 필요로 하게끔 된 것이다.

〈표 1〉 현재 미해군 항모타격전단 배치상황³⁾

소 속	편 성	배속 항모	모항 / 배속	작전지역
태평양 함 대	제1항모타격전단	Carl Vinson	San Diego (7함대)	북서태평양 / 인도양 (5. 25 모항 복귀)
	제3항모타격전단	John C. Stennis	Bremerton (3함대)	걸프 지역 (5. 29 호르무즈 해협 작전중)
	제5항모타격전단	George Washington	요코스카 (7함대)	서태평양 (5. 27 해상 훈련중)
	제7항모타격전단	Ronald Reagan	San Diego (7함대)	서태평양 (5. 31 일본근해 작전중)
	제9항모타격전단	Abraham Lincoln	Everett (3 → 5함대)	걸프 지역 (5. 31 페르시아만 작전중)
	제11항모타격전단	Nimitz	San Diego (3함대)	San Fransico 금문교 행사 동원
함 대 전 력 사령부	제2항모타격전단	George H. W. Bush	Norfolk (5함대)	5. 19 Norfolk 출항 5함대 배속 위해 대서양 항해중
	제8항모타격전단	Dwight D. Eisenhower	Norfolk	Virginia - Florida 인근 해역에서 훈련 종료
	제10항모타격전단	Harry S. Truman	Norfolk	정기 정비 중
	제12항모타격전단	Enterprise	Norfolk	12월 퇴역 대기
	제14항모타격전단	Theodore Roosevelt	Norfolk	국내 행사 참가 중

3) 미해군 홈페이지 검색, 최종검색일 2012년5월31일

2. 해상을 통한 북한의 위협

현대사 초유의 3대 정권세습을 이루고 있는 김정은은 2011년12월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4년이 지나 헌법을 바꾸고⁴⁾ 공식적인 최고지도자에 등극하였지만, 김정은은 4개월 만에 헌법을 바꾸고 당(노동당 제1비서), 정(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군(최고사령관)을 장악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지속적인 군부대 현지지도를 하며 군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의 개최 직전에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 로켓발사실험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 은하3호 로켓에 장착되었다고 주장한 광명성3호의 광명성은 바로 김정일을 상징하는 것이며 김정일 최대의 유산이 핵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으로서는 핵을 투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좋지않는 일이 되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영도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장 높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바로 핵실험을 들 수 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무역의 8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해상을 통한 도발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2,660회의 도발을 하였는데, 그 중 1,430회(55%)를 해상을 통해 도발했을 정도로 철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해상 도발은 상시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의 패전으로 위축된 줄 알았던 북한은 수상함 전력으로는 한국해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비대칭전력인 잠수함을 이용해 2010년 3월26일 한국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우리영토에 포탄을 쏘는 정전이후 초유의 사태인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도발양상은 갈수록 대담해 질 것이다.

최근의 충격적인 도발들은 대부분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북한으로서는 해주 앞바다를 비롯한 황해도 앞을 가로질러 막고 있는 NLL이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고, NLL만 무력화 시킨다면 경기만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북한으로서는 어족자원의 획득 이외에 물류비용 절감 등의 경제

4)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에서 수정·채택됨.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헌법.

적 이익과 함께 한국군의 안보수요를 급상승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인 NLL 무력화 책동을 이어가면서金正은의 미사일발사실험 실패에 대한 이미지 개선작업에 나설 수 있다.

이런 평시 NLL을 통한 해상 도발과 함께 전시에는 경기만의 제해권을 일시 장악하여 공기부양정을 통해 특수부대를 서울 후방에 침투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70여척 보유한 잠수함을 통해 인천·평택·군산·광양·창원·부산·울산·포항·동해 등 동·서·남해에 산재한 우리의 무역항들에 대한 테러를 하여 한국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경제활동은 계속 진행시켜야 살 수 있는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의 여건 상 무역항로의 위험도가 상승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군은 전시에 경기만의 제해권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북한 수상함 전력을 조기에 궤멸시킨 후, 동·서·남해의 무역항로 보호에 나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3. 중국과의 이어도 갈등

중국은 자체개발 이지스급 레이더를 장착한 052C급 방공구축함을 대량양산체제로 들어갔다. 또한 대공·대잠·대함·대양작전능력 등 모든 부분에 탁월한 전력을 가진 054A급 호위함도 대량양산체제로 들어갔다. 여기 더해 수중에서 공격원자력잠수함의 호위를 받는 항공모함까지 3척 정도를 보유하게 된다면 현재의 중국해군 전력과 10여년 후의 중국해군 전력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중국이 북한과 조중안보조약에 의거한 전시(戰時) 자동개입협정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의 입장 차이는 크다.

2003년 6월 11일 이어도 해역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었으며,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7km에 위치한 가거초 해양과학기지⁵⁾와 함께 서남해역의 생태와 기후 등 종합적인 해양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및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운영 등 우리의 정당한 주권 수호 노력에 대해 중국 측은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어도 해역에 관공선을 침투시켜 분쟁

5) 한국 정부가 2006년 대한민국 국적으로 회복시키고 2009년 10월 국내 두 번째의 해양과학기지를 완공

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 12월 13일 중국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양 순찰의 신성한 임무를 위해 중국산 Z-9A 헬기를 탑재한 3000t급 하이젠(海監) 50호를 상하이에서 출항시켰으며, 하이젠 50호의 주요 순찰 지역은 일본과 분쟁 중인 춘샤오 가스전과 다표위다오(釣漁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그리고 한국 이어도와 가거초 부근 해역에서도 순찰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⁶⁾

〈그림 1〉 중국 순찰선 하이젠50호의 순찰구역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하이젠 50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빈번하고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11년 10월 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해역 출현은 2006년 2회에 그쳤으나 해마다 급증하여 2011년 8월 현재 이미 16차례에 이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11년 6월 이어도 남서쪽 0.8km 해상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이어도의 암초에 좌초 침몰한 석탄 벌크선 오리엔탈 호프호의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나라 바지선과 예인선에 중국 해감의 관공선이 접근해“허가 없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인양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7월 5일에는 오전 6시25분과 오후 6시5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해감 관공선 3척이 한꺼번에 몰려와 무력 시위 성격의 항의를 해 왔다.⁷⁾

6) 조선일보, 2011년 12월 15일.

7) 국민일보, 2011년 12월 8일.

〈표 2〉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해역 출현 현황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출현 횟수	2	3	2	9	11	16

1967년 미 해군 해양연구소 탐사 팀의 해양지질학자 Emery K. O. 박사가 서해와 남해를 비롯한 대륙붕 전역에 대해 항공자력탐사와 개략 물리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대륙붕에 두터운 퇴적층이 분포하여 석유 및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1970년 1월 해저광물자원법 제정, 30만km²에 달하는 대륙붕에 광구를 설정하고 조광권 제도 등을 갖추면서 EEZ내 대륙붕에 대하여 7광구로도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을 포함 모두 12개 광구로 구획하여 탐사 및 개발을 하고 있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의 대륙붕 석유개발 광구의 하나인 4광구에 속하며, 중국의 북부광구와 겹친다. 이어도 해역을 포함하는 제4광구는 중국과의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본격 탐사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969~2005년 진행된 4광구 자원탐사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3곳 발견됐다. 특히 이어도 주변에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

이어도 해역은 이렇게 국가적 미래 이익이 걸린 매우 중요한 해역으로 반드시 주권 수역으로 지켜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반면 중국 역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가치를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며, 그러한 입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관공선 침투와 같은 공세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정책 및 전략을 관철시키려는 적극적인 행태는 이어도 해역 역시 일본과 중국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분쟁의 복사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일·중 양국이 해양조사선과 순찰선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최근에는 군함과 전투기까지 출격시키는 사태로 이어지는¹⁰⁾ 수순을 밟고 있다.

결국은 남중해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서 해전을 통해 무력점령을 달성한 중국이 이어도 및 가거초 그리고 제주남방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제압할

8)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자료, 정희석(새누리당) 의원실, 최구식(무소속) 의원실.

9) 국민일보, 2011년 12월 8일.

10) 서울신문, 2011년 7월 9일, 「일본 방위성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가 2011년 7월 4일 센카쿠열도 해역의 일본 영공 60km 지점까지 접근해 F-15J 전투기를 출격시켜 제지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부근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군용기의 접근을 제지한 것은 2006년의 두 배 수준인 44차례에 이른다.」

수 있다는 군사적·정치적·외교적 판단이 있을 때, 효과적인 때를 선택하여 목적을 달성하려 들것을 예측하게 한다.

즉, 2011년 6월에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 순시선이 우리나라 선박에게 요구했던 “허가 없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식의 공개적인 이슈화 → 무장이 강화된 순시선의 이어도 해역 증파 → 이어도 상공의 중국 항공기 잦은 출격 → 함정 전투단 전개 → 우리 해군 함정과의 대치 →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공격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¹¹⁾

4.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

독도 및 독도수역을 둘러싼 한·일의 영유권 갈등은 2005년 6월 독도 인근수역에서 우리 해양경찰 경비정 13척 등 한·일 간 대치하였던 신평호 사건과 2006년 4월 일본의 독도해역 ‘수로 조사’ 기도¹²⁾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사건에서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06년의 독도사태는 전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강경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점증하는 우경화의 영향으로 지방

11) 신인균외, 『주권 위협수역 방어를 위한 해군전력 건설 및 민·군 협력방안』, pp.58-61

12) ① 한국경제, 2006년 4월 19일, 「독도 주변해역 수로 탐사를 위해 도쿄를 출항한 일본 탐사선 두 척이 19일 사카이 항을 떠나 인근 해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탐사 철퇴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며 조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일본이 탐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며 탐사 강행 의지를 밝힌 뒤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도쿄를 출발, 돗토리현 사카이 항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 62t급 메이요와 605t급 가이요 등 두 척은 이날 사카이 항을 떠나 인근 해역에 머물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노컷뉴스, 2006년 4월 19일, 「일본이 해양 탐사선을 출항시킴에 따라 정부는 독도 부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경함정 18척을 집중 배치하는 등 경계강화에 들어갔다. 독도 주변 해역을 측량할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조사선이 출발함에 따라 독도 부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5천톤급 경비함 삼봉호를 비롯해 동해와 남해에 있던 500톤급 이상 해경 경비정 18척을 독도 주변 해역으로 긴급 증파했다. 해상 경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초계기 챌린저호도 강릉 비행장에 배치하고 출동 준비를 마치도록 지시했다. 24시간 비상체제 근무에 들어간 해경은 일본 측량선이 우리 측 EEZ를 침범할 경우 정션을 명령한 뒤 검문을 벌이고 검문에 불응할 때는 나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의 정치 이벤트성 주장을 넘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독도를 빈번하게 거론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형식의 일본인들뿐만 아니라¹³⁾ 일본 국회의원¹⁴⁾들과 언론인들¹⁵⁾의 독도 입도도 시도되고 있다.

〈표 3〉 2000년 이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례¹⁶⁾

일 자	내 용
2000.09.19	일본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독도는 일본 땅’ 망언.
2001.02.27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 ‘한국, 독도 불법 점거’ 주장.
2004.05.05	일본 우익단체 독도 상륙 시도.
2004.07.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2000t급 해저광물탐사선 탐해 2호, 독도 인근 영해에서 천연가스층 조사하던 중 일본순시선으로부터 “이 수역은 일본 EEZ이고 지질탐사를 위한 일본정부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퇴거하라”고 명령해 탐사활동이 전면 중단. ¹⁷⁾ (5000t급 삼봉호 등 해경 경비정 3척이 긴급 출동, 탐해 2호를 둘러싸고 일본 측과 이틀 간 대치)
2005.02.02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영토’ 발언.
2005.02.23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조례 제정.
2005.03.08	일본 경 비행기 독도 상공 진입 시도.

- 13) 서울신문. 2011년, 8월 3일 「2005년 3월 독도가 내·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이용해 독도를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모두 59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명, 2006년 18명, 2007년 7명, 2008년 19명, 2009년 5명, 2010년 1명, 올 들어 지금까지 5명 등이다. 하지만 굳은 같은 기간 실제로 독도를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6년 남짓 동안 울릉도를 찾은 외국인 전체 방문객 4086명 가운데 일본인이 최소한 5%가량인 200여명 안팎일 것”이라면서 “이들 대다수가 독도를 방문하면서도 제대로 독도 입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라면 공식 집계된 59명을 제외한 140명가량은 몰래 독도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된다.」
- 14) 한국일보. 2011년, 8월 2일. 「전일본공수(ANA)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신도 의원은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국 금지가 되면 큰 외교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토 의원은 트위터(@SatoMasahisa)에 공항 상황을 생중계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불명료하고 문제점도 많다”며 “내일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보고를 하고 대응방침을 논의 하겠다”고 적었다. 김포공항을 관할하는 한효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장은 “대한민국의 공공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입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신도 의원 일행은 이날 저녁까지 입국 거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김포공항 임시 대기 사무실에서 버티다 결국 오후 8시10분 일본으로 돌아갔다.」
- 15) YTN. 2011년 8월 4일. 「산케이신문 기자 3명은 지난 2일 울릉도에 들어와 신분을 감추고 동동항에서 열린 이재오 특임장관과 주민들의 일본규탄 켈기대회를 취재했으며 다음날에는 죽도와 독도박물관 등 울릉도 곳곳을 돌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6) 신인균외. 『주권 위협수역 방어를 위한 해군전력 건설 및 민·군 협력방안』p.47

일 자	내 용
2005.04.05	일본 '후쇼샤' 역사교과서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 기술.
2006.02.22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 행사.
2006.03.29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2006.04.13. ~ 04.22	일본, 우리 측 EEZ수역 등 동해상 해저지형 탐사계획 통보. 이후 차관 급 협의로 탐사계획 철회.
2006.07.24	일본 주재 외신기자단 독도 방문.
2007.02.24	시마네현 '독도의 날' 2주년 기념식.
2008.07.14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2009.12.25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직접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고수.
2010.02.22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식
2010.03.30	일본, 초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에 독도 자국영해로 표기
2010.04.13	일본 외무성, 2010년판 외교청서 '한일관계' 항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 유의 영토'라고 기술
2010.09.10	일본, 201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기술
2011.02.22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표 3〉의 사례와 독도 수역에서 일본 측에 의해 의도 되거나 또는 증폭된 갈등이 2005년 신평호 사건 당시와 같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대치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해군 간의 무력충돌로 상승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Ⅲ. 한반도 주변국의 해군력

1. 북한해군의 전력

북한해군은 총 46,000명의 병력에 동해함대와 서해함대의 2개 함대로 운용

17) 한국일보, 2006년 4월 20일, '日, 한국측 해양조사 10년간 수차례 방해'

되고 있다. 동서·남해로 이어져 있어서 전력의 호환성이 용이한 우리해군에 비해 북한은 동해와 서해가 단절되어 있어 전력의 호환과 집중이 어려운 상태다. 해군 전력의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고 수상함 전력은 전근대적인 수준이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서 우리 군함을 신형어뢰로 공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전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¹⁸⁾

북한 해군의 상륙전력은 1970년대 초반부터 건조된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총 260여 척과 소해정 30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저격여단과 해군정찰대대는 은밀히 침투하여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중요 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요 지역을 확보하여 대형 상륙함이 필요 없는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이다.¹⁹⁾

〈그림 2〉 북한 해군기지²⁰⁾



18) 국방백서 2010. p.25

19) 상계서 p.25

20) 신인균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우리해군의 대응전략 및 전력발전 방향』p.26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력은 대한민국에 비해 한 세대 정도 뒤진 노후화·소형화·기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연안 경계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이러한 수세적 입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잠수함 등 비대칭 전략에 따른 전력 중심으로 확충하면서 우리해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고강도 전쟁 발발 시라면 우리 해군은 우세한 장비와 전력으로 북한이 다량 보유한 잠수함들조차도 기지의 제거 및 봉쇄를 통해 잠수함들을 조기에 제거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겠지만, 확전되지 않는 저강도 분쟁이나 제한적 기습공격에 대해서는 천안함폭침이나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 357호정 피격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 탐지 또는 억제에 커다란 현실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확전을 우려하는 국내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공세적인 전술을 펴기 어려웠던 우리 해군의 입장으로서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손발이 묶인 것과 같은 제한적 대응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표 4〉 북한해군 군함²¹⁾

수상함	프리깃	5척	나진급 2척, 소호급 1척
	코르벳	5척	사리원급 4척, Tral 1척
	미사일공격정 (PTG)	16척	소호급 6척, 소주급 10척 (SSN-2 대함미사일 4발탑재)
잠수함	로미오급	16척	533mm 어뢰관 8구
	상어급	22척	533mm 어뢰관 2구
	기타	20척	
연안 경비정	경비정	200척	
	PC/PCS/PB	120척	
	PCFS	60척	
	Unspecified	20척	
상륙정	남포급	96척	무장병력 35명 탑승
	공방급	130척	무장병력 50명 탑승
	LCM	18척	한태급(전차 3대, 무장병력 350명 탑승)
	LSM	10척	
	기타	23척	
소해정		24척	

2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 pp.408-415

북한군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정의 전력은 지난 수차례에 걸친 서해상의 해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근대적인 소형 함정으로 구성된 북한 해군의 수상함 세력은 지난 연평해전 때의 선제공격 금지와 같은 비군사적 판단에 의한 인위적 환경만 아니라면, 우리해군의 능력으로도 어렵지 않게 억제 또는 섬멸시킬 수도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70여 척의 잠수함(정) 세력과 전진 배치된 230여 척의 공기부양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 중국해군의 전력

중국해군은 약 255,000여 명의 병력²³⁾이며, 편제 상 단계는 함대-항공병부-기지-기지구-함정지대-함정중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함대는 함정부대, 잠수함, 항공대, 연안경비 및 해병대로 편성되어 있고 함대로는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3개함대가 있다. 산둥반도의 칭따오에 사령부를 두고 우리의 서해를 마주하는 북해함대, 상하이 남쪽 닝보에 사령부를 두고 제주남방 항로를 마주하는 동해함대, 중동~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해상 남방항로 중간에 위치한 남해함대 모두 유사시,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해함대는 한반도 유사시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고, 동해함대는 이어도를 둘러싼 해상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해군과 신경전을 벌여야 할 함대가 될 것이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²⁴⁾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은 연안으로부터 900마일 해상까지 작전수역을 확대하여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영해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미치는 전략상의 영토개념으로 확대하였다.²⁵⁾

22) 신인균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우리해군의 대응전략 및 전력발전 방향』pp.24-26

23)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 p.399

24) 중국은 1981년 劉華清 해군사령관이 취임 한 후, 1985년 중국은 국방정책을 전환하면서 해군은 적을 유인하여 해안에서 섬멸한다는 기존의 ‘近海防禦戰略’을 해상에서 선제공격으로 적을 섬멸시킨다는 새로운 ‘近海積極的防禦戰略’으로 전환하였다. Jun Zhan, “China goes to the Blue Waters: The navy, Sea Power Mentality and the South China Sea”, The Journal Strategic, vol. 17, no. 3, Sep. 1994, p.181

25) 中國大陸研究, 제 40권, 제9기, 中共海軍戰略統進之研究 陳永康, 1997년 9월호, p.16

〈그림 3〉 중국해군의 함대사령부와 함대별 전력²⁶⁾



중국이 “근해 적극방어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첫째, 정치적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대만과 남중국해의 도서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다. 둘째, 경제적으로 중국의 해양활동을 보호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셋째, 외교적으로 주변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넷째, 군사적으로 해상방어의 폭을 넓히고 중심을 확대하여 연해 지역의 방어층을 더욱 두텁게 함으로써 적의 해상봉쇄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전략은 해군의 대규모 기동작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²⁷⁾

“적극연안방어전략”은 단계적으로 확보 가능한 목표 시점을 두고, 제 1도련선(島連線),²⁸⁾ 제2도련선²⁹⁾으로 작전수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중국이 표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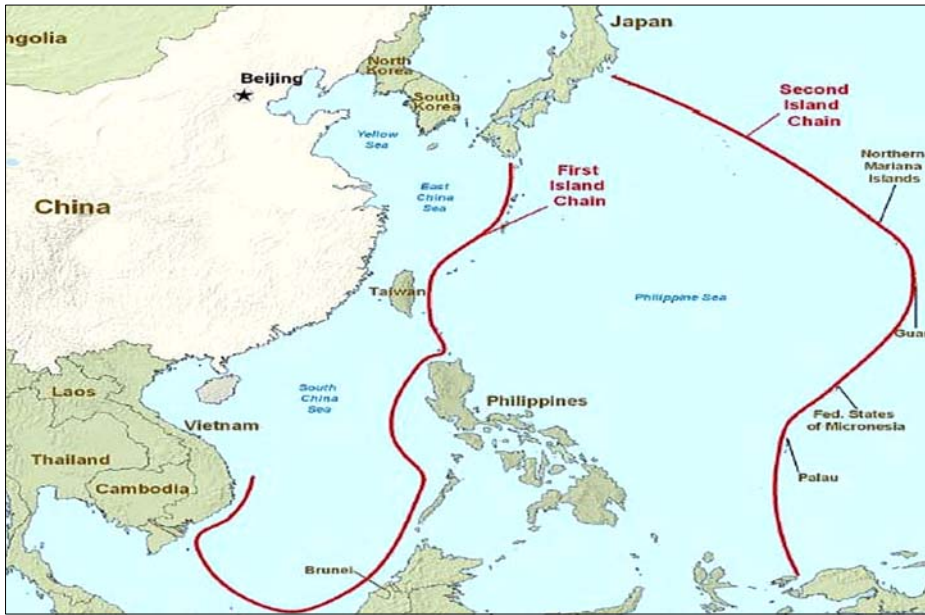
26) 미 국방성 중국군사력 연례보고서 2011.

27) “The Journal of East Affairs, VI권, No.1, Winter/Spring 1997.” Changing Military Doctrines of the PRC: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eople’s War and Thechnology, Hwang ByungMoo, p.239

28) 뉴데일리, 2011년 8월 26일, 「도련선(島連線·Island Chain) 1951년 미국무장관 존 딜레스가 주장한 공산권 봉쇄라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중국은 바꿔 자신들의 이익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 ‘도련선’ 안을 자신들의 ‘영해’처럼 지배하고 싶어 한다. 이 ‘도련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차 무시한다.」

“근해방어전략”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일 뿐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주권적 배타적 경제수역 까지를 모두 범위에 넣는 제국주의적, 침략적, 패권적, 공격적인 전략이다.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의 위치는 <그림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림 4> 중국의 도련선 확보계획³⁰⁾



한편, 중국은 최근에 들어 “근해”라는 용어 보다는 더욱 공세적이고 솔직해진 “대양”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저널 Junshi Kexue 2007년 2호에서 왕쉬메이는「“대양” 이익은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에너지 자산, 중국과 중동지역의 해상 교통로 : 원양 및 40개국의 다른 해역에서 조업하는 1,800척 이상의 중국어선, 세계해역의 해양자원, 해외에 있는 중국인의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³¹⁾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수량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후진적 해군이었으나 1994년 크로탈

29) 상계서, 「‘제1 도련선’은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을 잇는 선이고, ‘제 2 도련선’은 타이완-괌-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30) 미 국방성 중국군사력 연례보고서 2011.

3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술총서 49. 중국해군의 증강과 한미해군 협력. 2009년. 프레드릭 벨루치 주니어. p.47

함대공미사일(SAM)을 장착한 루후급 구축함인 하얼빈함(Type052)을 전력화 하면서부터 초보적이지만 방공능력을 갖춘 군함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지양웨이2급 호위함(Type053H3), 루하이급 구축함(Type051B)등을 건조하며 대잠헬기 탑재능력과 방공능력을 가진 군함을 다량 건조하던 중국해군은 1999년 러시아로부터 초음속대함미사일인 SS-N-22 Sunburn이 8발 탑재된 소브르멘니급 구축함을 도입하여 공격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더욱 발전된 군함들을 건조한 중국해군은 이지스레이더처럼 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되고 48cell의 수직발사대가 장착된 최신식 구축함인 란저우함(Type052C)을 2004년에 전력화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32cell의 수직발사관과 8발의 대함미사일에 대잠헬기 운용능력을 갖춘 지양카이2급 호위함(Type054A)을 대량건조³²⁾하기 시작하여 양적, 질적으로 수상함 전력을 급상승시키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해군은 수상함 뿐 아니라 잠수함 전력증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 11월 29일 홍콩의 명보(明報)는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현재 6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2020년까지 30척을 추가로 보유할 것이라고 보도³³⁾했다. 중국이 최신티 잠수함들을 다량 확보하는 이유는 중국해군이 잠수함을 다층방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은 이들 잠수함들을 활용하여 미국의 항모전단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어 또는 지연시키는 용도로 적절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대만 또는 한반도의 유사시를 적용한다면, 2015년 까지 보유하게 되는 8척의 공격원자력잠수함과 Kilo급 12척, Yuan급 2척, Yuan급 개량형 10척, Song급 20척³⁴⁾ 등 성능이 향상된 신형 재래식잠수함 44척 등의 잠수함들 중 전개-보수-훈련-대기 등의 운영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10이상의 수준은 적극 전개가 가능 할 것이다.

즉, 공격원잠 3여 척, 재래식의 신형공격 잠수함 15~20여 척을 적극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전개되는 미국 항모전단 수량에 대응하여 [공격 원잠 1척 + 재래식 신형 공격 잠수함 5~6여척] 및 [공격 원잠 2척 + 재래식 10여 척]의 잠수함전단 형태 또는 [원거리 해역: 공격 원잠 3~4여 척 + 중·근거리해역: 재래식 15~18여척]의 역할 분담 방식 등 유연한 조합으로 동아시아 해역으로 진입하는 여러 개의 미국 항모전단에게 탄력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만 또는 한반도 유사시 2~4개의 미국 항모전단이 전개된다고 가정

32) Jane's Fighting Ships 2007-2008 pp.122-134

33) 아주경제, 2011년 11월 29일.

34) Globalsecurity.com

할 경우, 중국 해군은 동아시아 해역으로 진입하려는 미국의 항모전단을 제2도련선 또는 제1도련선의 원거리에서부터 축차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대량의 중국 잠수함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미국의 항모전단은 중

〈표 5〉 중국해군 군함전력³⁵⁾

구 분	형식	수량	비고	
구축함	Type 051	12		
	Type 051B	2		
	Type 051C	2		
	Type 052	1		
	Type 052B	1		
	Type 052C	3	+5예정	
	Sovremnyy	6		
계		27		
호위함	Type 053	1		
	Type 053H	27		
	Type 053H2	3		
	Type 053H3	10		
	Type 053H2G	4		
	Type 054	2		
	Type 054A	6	+2예정	
계		53		
잠수함	SSBN	Type 092 Xia	1	
		Type 094 Jin	4	
	계		5	
	SSN	Type 093 Shang	4	
		Type 091 Han	4	
	계		8	
	SSK	Type 091 Yuan	4	
		Type 039 Song	13	
		Type 035 Ming	18	
		Kilo	12	
계		47		

35) 미 국방성 중국군사력 연례보고서 2011, Jane's Fighting Ships 2007-2008 pp.122-134, Globalsecurity.com.을 종합하여 정리.

국 잠수함들의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만 또는 한반도 해역에 진입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잠수함 문제를 해결하기 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신속하게 이뤄지는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적기”에 이뤄져야 할 핵심 전력의 투입을 실기하게 될 것을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현대화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 중국해군은 2008년12월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띄고 1척의 군수지원함과 함께 2척의 구축함을 파견하였다. 이 때 파견된 구축함은 중국해군의 최신에 구축함인 하이커우함(Type052C)과 우한함(Type052B)인데³⁶⁾, 이는 각 클래스별로 1척씩 대양작전능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이런 의도가 더욱 명확해 진 것은 2009년4월 소말리아 파병부대 2진의 진용에서 더욱 확인해졌다. 중국해군은 소말리아파병 2진으로 DD-167 선전함(Type051B)과 호위함인 FFG-570 황산함(Type054A)을 보냈다.³⁷⁾ 이렇게 소말리아 파병으로 각 클래스 군함들의 작전능력을 테스트한 중국해군은 급기야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과감한 작전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중국해군의 서태평양 진출 훈련은 2010년 2회, 2011년 2회 등 총 4차례나 진행했다. 2011년 6월 동해함대 소속의 함정 11척을 동원해 미·일의 제1 도련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 2011년 11월 북해함대 소속의 미사일구축함 2척과 미사일호위함 2척, 보급선 1척, 전자정찰선 1척 등 총 6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일본의 난세이제도를 돌파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일의 전자 감시 장비가 두려워 몰래 훈련을 했지만, 이제는 중국도 대등한 감시 장비를 갖춰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자유롭게 대양을 드나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일의 감시 속에서도 여유 있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³⁸⁾

중국은 해군력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력도 건설하고 있다. 소련 해체시에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던 바라크 항공모함을 사온 중국은 긴 개조작업 끝에 2011년 8월10일 첫 시험운항에 나섰다.³⁹⁾ 뿐만 아니라 미 국방성 중국군사력 연례보고서 2011에 따르면 중국해군은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을 2척 이상

36) 자주국방네트워크 2008년12월28일 기사

37) 자주국방네트워크 2009년4월7일 기사

38) 조선일보 2011년12월6일

39) 헤럴드경제 2011년8월10일 2면2단

건조하여 10년 내로 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⁴⁰⁾ 중국은 항공모함을 수중 호위할 수 있는 공격원자력잠수함과 수상 호위할 수 있는 방공함, 대잠호위함등 기반세력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항공모함만 있으면 완벽한 항모전투단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해군의 이런 눈부신 발전은 영겁결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89년 계획된 중국의 3단계 해군전력 증강계획⁴¹⁾에 따르면 제1단계인 1989년~2000년까지는 신예 미사일과 전자장비로 무장한 작전함정의 건조에 중점을 두며, 제2단계인 2001년~2020년 사이에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3단계인 2021년~2040년에는 러시아 해군 나아가서는 미국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에 버금가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⁴²⁾고 되어 있다.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중국은 20여 년 전에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나가며 그토록 강해보이던 일본해상자위대를 넘어 미해군 태평양함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전력으로까지 발전 중인 것이다.

3.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목표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보호로 압축된다. 1,000해리 해상교통로보호란 일본이 자원수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로로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병참지원을 실시할 때의 해로 두 곳을 설정하여 일본 해안에서 1,000해리까지는 일본이 보호하고, 그 외의 해역은 미국이 책임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전략은 일본정부가 예전부터 공식적으로 표명해 오던 전수방위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³⁾ 이런 해상자위대 전력과 편제가 평성(平成)19년 말(末)인 2008년 3월을 기해 대대적인 개편을 하여 탄도미사일방어와 도서방어 등의 크게 두 가지 임무로 재편 되었다.⁴⁴⁾

전력 면에 있어서 해상자위대는 3,000톤급 이하의 중·소형 군함이 퇴역하면

40) 중앙일보 2012년 5월 21일 12면2단

41) 三段階海軍軍力整備方針

42) 軍事史林, 1992년 3월호, p.13

43) 김종섭 외, 『일본의 해상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pp.33-34

44) ·제1호위대군 : 수도방어, 태평양 방어 ·제2호위대군 : 해상수송로 보호, 대중국 견제, 탄도탄 방어, 남방도서 방어 ·제3호위대군 : 북한 견제, 동해 제해, 탄도탄 방어 ·제4호위대군 : 북방 도서 방어, 러시아 견제, 다른 호위대군의 예비대

동급의 후속함을 개발하지 않고, 모두 5,000톤급 이상의 중·대형함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전수방위를 넘어 미해군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강급의 대양함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6년 간 총 11척이 배치되었던 기준배수량 3,050톤의 ‘하츠유키’(Hatsuyuki)급 호위함에 대한 후속함이 기준배수량 5,000톤급인 19DD⁴⁵⁾로 예산승인이 나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19DD의 1번함 DD-115 Akizuki함이 2010년 10월 13일 진수되어 2012년 3월 14일 취역하였다. 또 제2번함인 DD-116 Teruzuki함은 2011년 9월 15일 진수되어 현재 시험평가 중이며 2013년 취역 예정이다.

이런 대형화는 각 호위대군의 기함(旗艦)으로 활약하다가 퇴역한 헬기탑재 구축함인 ‘하루나’(Haruna)함과 ‘히에이’(Hiei)함의 후속함인 ‘휴우가’(Hyuga)함의 예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기준배수량 4,950톤이던 하루나급의 후속이 무려 3배가량 큰 13,500톤급으로 커졌다. 16DDH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알려져 있던 ‘휴우가’함은 만재배수량 18,000톤이 넘어서, 크기는 한국해군의 ‘독도함’과 거의 같다. 하지만 독도함은 상륙수송함이기 때문에 함 내부에 일부 헬기정비공간과 함께 상륙군의 물자를 싣기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휴우가함은 함 내부에 헬기를 비롯한 항공기 정비공간과 대잠, 대공 전투를 위한 설비가 완비되어 있어서 독도함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도 독도함은 수송함이지만 휴우가함은 구축함으로 분류 된다.

해상자위대는 2008년 수상함대의 합리화, 효율화, 컴팩트화를 위해 지휘권 및 편제의 대개편을 단행하여, 각 호위대군은 도서방어, 해양수송로 보호 등에 특화된 DDH⁴⁶⁾ 전투단의 호위대와 탄도탄 방어에 특화된 DDG⁴⁷⁾ 전투단의 호위대로 재편 된 바 있다.⁴⁸⁾ 또한 한반도와 관계있는 제2호위대군과 제3호위대군에는 새로 건조된 아타고급 이지스함들이 추가 배치되었으며, 기함들을 경항모급 구축함인 휴우가급으로 교체하고 추가로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에 대항하여 만재배수량 28,000톤에 달하는 22DDH를 건조하여 배치하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45) 일본은 함이 건조되기 전까지의 프로젝트명을 예산승인이 난 해의 연호를 붙이고, 뒤에 그 배의 성격에 따른 기호를 붙인다. 즉 19DD에서 19는 平成 19년(2007년)에 예산승인이 났다는 것이며 뒤의 DD는 구축함을 뜻하는 기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차기 AIP잠수함인 16SS는 平成 16년(2004년)에 예산승인이 났다는 것이며 뒤의 SS는 잠수함을 뜻하는 기호이다.

46) 『세계군사용어사전』121쪽 박재권. Helicopter Destroyer. [해상자위대(편의상 기호) 헬기 복수기를 탑재한 호위함].

47) 상계서. ① Guided Missile Destroyer 미사일 구축함 ② [해상자위대(편의상 기호)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호위함]

48) 『世界の艦船』2008년 6월호

〈표 6〉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전력⁴⁹⁾

종류	분류명	기준배수량	배치	주요무장	특징	척수
호위함	콩고급	7,250톤	1993~1998	MK-41 VLS ⁵⁰⁾ 96cell (SM-2MR 대공미사일, 아스록 대잠미사일, SM-3 ⁵¹⁾ 탄도탄요격미사일) 127mm오토멜라라 함포 1문 20mm팰렁스CIWS ⁵²⁾ 2기 하푼 대함미사일 8발 324mm어뢰발사관 2기(6발)	SPY-1D이지스레이더 탑재. 개조를 통해 탄도탄요격능력 확보. 헬기운용능력 없음	4척
	아타고급	7,700톤	2007~2008	MK-41 VLS 96cell (SM-2MR 대공미사일, 아스록 대잠미사일, SM-3 탄도탄요격미사일) 127mm MK-45 함포 1문 20mm팰렁스 블록1B 2기 90식 대함미사일 8발 324mm어뢰발사관 2기(6발) 대잠헬기1대	한국해군 세종대왕함과 같은 버전의 이지스레이더를 탑재. 현재 탄도탄요격능력 없음. 헬기 운용가능.	2척
	휴우가급	13,500톤	2009~2011	MK-41 VLS 16cell (ESSM ⁵³⁾ 대공미사일, 아스록 대잠미사일) 20mm팰렁스 블록1B 2기 324mm어뢰발사관 2기(6발) 대잠헬기 4대 운용	준(準)이지스급의 위상배열레이더 탑재. 헬기모함.	2척
	타카나미급	4,650톤	2003~2006	MK-41 VLS 16cell (씨스패로 ⁵⁴⁾ 대공미사일 16발, 아스록 대잠미사일 16발) 127mm오토멜라라 함포 1문 90식 대함미사일 8발 20mm팰렁스 블록1B 2기 324mm어뢰발사관 3기(9발) 대잠헬기 1대	무라사메급을 개량한 대잠특화 군함.	5척

49) 신인균 『독도의 실효적지배 유지방안』2008. pp.45-46. 일부수정

종류	분류명	기준배수량	배치	주요무장	특징	척수
	무라사메급	4,550톤	1996~2002	MK-48 VLS 16cell (씨스패로 대공미사일 16발) MK-41 VLS 16cell (아스록 대잠미사일 16발) 90식 대함미사일 8발 76mm오토멜라라 함포 1문 20mm펠랭스CIWS 2기 324mm어뢰발사관 2기(6발) 대잠헬기1대	호위대군의 수적 주력구축함	9척
	아사기리급	3,550톤	1988~1991	씨스패로 대공미사일 8발 아스록 대잠미사일 8발 76mm오토멜라라 함포 1문 20mm펠랭스CIWS 2기 324mm어뢰발사관 2기(6발) 대잠헬기1대	총 8척이 건조되었지만 1,2번함은 훈련함으로 사용되어 호위함대에는 총 6척 배치	8척
	하츠유키급	3,050톤	1982~1987	아사기리급과 같음	88함대용 범용호위함의 1진, 퇴역 중	11척
	아키즈키급	5,000톤	2012~	아타고급이지스함과 비슷한 무장. 이지스함을 보조하는 함대방공용 군함.	일본 자체개발의 準이지스급 레이더 장착. 하츠유키급을 대체하는 모델	8척 예상
잠수함	하루시오급	2,450톤	1990~1995	533mm어뢰발사관 6문	2척은 훈련함	5척
	오야시오급	2,750톤	1998~2008	533mm어뢰발사관 6문	현재 해상자위대 주력잠수함	11척
	소류급	2,900톤	2008~	533mm어뢰발사관 6문	스털링방식 AIP	4척
고속정	하야부사급	200톤	2002~2004	76mm 함포 1문 12.7mm 기관총 2기 90식 대함미사일 4발	지방대의 핵심 세력	6척
수송함	오오수미급	8,900톤	1998~2003	20mm펠랭스CIWS 2기 전차 10대, 상륙병390명 공기부양정 2척 헬기 5대	독도함과 비슷한 강습상륙함	3척

〈표 6〉에서 보듯이 일본은 매년 절대로 거르는 일 없이 군함을 생산 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이 해군력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고, 새로 건조되는 군함들은 하나같이 첨단화, 대형화 되어서 잠수함 전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상함만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일본 해상자위대를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전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세계 수상함 전력의 최고 꼭지점에 있는 이지스함을 6척이나 보유 중인 일본은 공고(金剛)급 이지스함 4척에 BMD⁵⁵⁾능력을 추가하는 개량을 하여 SM-3대공미사일을 장착 하였다. 2007년 12월18일 하와이 근해에서 공고함은 지상 160km의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하여⁵⁶⁾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해군의 기동전단에 해당하는 일본해상자위대 호위대군(護衛隊群)은 이제 각 호위대군 당 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여 막강한 대공능력을 가지며, 휴우가함과 같은 헬기모함을 1척씩 배치하여 강력한 대잠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이지스함들이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레이더의 전력을 집중할 때의 빈틈⁵⁷⁾을 우려해 準이지스급 성능의 19DD 아키즈키급 구축함을 대량 배치하여 함대방공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또 타카나미급 구축함과 무라사메급 구축함과 같은 최신에 구축함을 함대의 범용구축함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군함들도 하나같이 대함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잠 전력은 모든 일본 군함들이 그렇듯이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⁵⁸⁾

일본은 중국의 급부상과 센카쿠열도와 난세이제도 등에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하여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해군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50) VLS는 Vertical Launching System의 약자로 수직발사 시스템을 말한다. VLS의 장점은 대응시간이 짧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어떤 미사일이 몇 발 장착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력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1) 최대사정거리 500km 이상, 직접타격방식의 탄도탄 요격 특화 미사일.

52) Close In Weapon System의 약자로 대공목표에 대한 최종요격무기체계를 말한다.

53) ESSM 대공미사일은 최신에 대공미사일로 50G에 이르는 기동력, 4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가 작아 MK-41 VLS 1cell에 4발이 장착되기 때문에 휴우가급의 VLS가 비록 16cell 뿐이지만 결코 적은 수량이 아니다.

54) 사정거리 16km의 씨스패로 함대공미사일은 자함(自艦)방공용의 미사일이다. 타카나미급 구축함은 ESSM대공미사일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55)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약자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뜻함.

56) 『뉴시스』2007.12.18

57) 이지스레이더는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탄도탄을 추적할 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탄도탄을 추적 하므로 이때 동시대응능력이 취약해진다.

58) 신인균 『독도의 실효적지배 유지방안』2008. pp.46-47

해군력 증강은 결국 독도에 대한 그들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IV. 한국해군의 전력건설 방향

1. 전력건설목표

우리 해군에 대한 실재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은 자명하다. 실재적 위협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2,660회의 도발을 하였는데, 그 중 1,430회(55%)를 해상을 통해 도발할 정도로 바다를 많이 이용한다. 평시에는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등의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각종 테러행위를 하여 코리안리스크를 상승시키고 NLL을 무력화 할 심산이며, 전시에는 잠수함을 통한 후방해상수송로를 봉쇄하여 한국군의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은 전면전 발생시에 보잘 것 없는 수상함 세력이지만, 한국해군과의 결전에서 승리할 수 없더라도 대잠전력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입히려 할 것이다. 한국해군의 함대함미사일의 시커(Seeker)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어선이나 화물선을 동원하여 그 사이사이에 고속정들을 배치하고, 함대함미사일이 장착된 미사일고속정들을 후방에 숨겨서 함대함미사일의 사정거리 내로 진입하여 우리해군 군함들을 향해 함대함미사일을 일거에 발사할 기회를 만들려 할 것이다.

우리해군은 이 일전에서 신속하면서도 피해 없이 적 수상함을 격멸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 후 동·서·남해 전해역의 해상수송로에 대한 대잠전에 돌입해야 한다. 북한 잠수함들은 기뢰전과 어뢰를 통한 무차별적인 상선공격 등을 자행하여 한국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전쟁지속능력의 약화와 함께 반전여론을 일으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상군 전력이 북한 전역을 석권할 때까지 우리 해군이 후방에서 이런 테러행위들을 막아내야 한다. 해상수송로의 안전보장과 함께 군함에 탑재된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전략거점을 정밀 타격하여 육군의 진격을 돕고 공군의 부하를 줄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력과 함께 타격력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

은 이미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역전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체제유지와 기득권층의 개인안보 등을 위해 핵보유국지위 획득의 대전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한다면 그들이 보유한 600여 기의 스커드미사일과 200여 기의 노동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노릴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해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 줄 전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시급함을 넘어 절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실재적 위협이 북한이라면 잠재적 위협은 중국과 일본이다. 해군전력 건설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군함을 건조하면 최소 30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30년 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만 특화된 전력건설을 한다면 통일이라는 급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의 해양안보는 치명적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예견되는 이어도를 비롯한 해양 분쟁, 일본과는 7광구 지역의 공동개발 해지에 따른 입장문제와 함께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에 대한 도서 영토분쟁화 책동 등을 고려하여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억제력을 가진 전력 건설을 병행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앞서 조사한 바대로 세계 최강급의 대양함대를 구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도 중·일과의 유사시 해상봉쇄를 당하지 않고 해상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함 건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체규모에서는 밀리더라도 “집중”의 묘미를 살린다면 충분히 억제력을 가진 해군력을 만들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북한해군 전력에 대한 압도적 우위 달성으로 합동성 기여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개전초기에 해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대, 각종 방공레이더 같은 고정형 고가치 표적, 비행장의 관제시스템, 활주로, 통신중계시스템 등을 군함에 탑재된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정밀 타격하여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 설 수 있는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개전 첫날 해군이 700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공군 전투기들이 700소티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군은 그런 여유 소티를 북한의 이동형 탄도미사일발사차량 파괴라든지

장사정포가 숨겨진 갯도진지를 파괴시켜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빨리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입장에서 공군의 CAS⁵⁹⁾지원을 더욱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어 빠른 시간 내에 공세로 전환하게 될 수 있다.

과거 해군 함정에서 지상을 향해 할 수 있는 공격이 함포사격이 전부였던 시절에는 개전 초 군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되었다. 하지만 국내기술로 함대지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지금은 그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을수록 육군과 공군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유리한 국면 속에 다양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이 개전 첫날 얼마나 많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냐는 전쟁의 승패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확보는 해군차원이 아니라 군 전체 차원에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 군함이 전쟁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대공능력이다. 과거 우리 군함의 대공능력이 전무하던 시절에는 공군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들로 북한 전투기들에 대한 방어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활주로나 지대공미사일기지는 북한 특수부대가 탄도미사일의 1차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생존률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했었다. 하지만 군함에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이 장착되고 나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군함은 지속적인 기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위치를 알 수 없어서 특작부대가 타격을 할 수 없다. 사정거리 150km의 SM-2 함대공미사일을 장착한 DDH-II가 단 1척 만이라도 경기만과 강원도 고성 근해에서 작전한다면 북한공군은 경기만 상공 등 해상 상공을 통한 우회침투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육지 상공도 SM-2 사정거리 밖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강원도의 중부권 등 내륙의 회랑 밖에 이용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공군에 E-737조기경보통제기가 도입되어 해군 구축함들과 Link-16과 같은 실시간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지평선 너머에서 저공비행하여 군함 레이더의 눈을 피한다 해도 고공에서 내려 보는 E-737의 레이더에 탐지되어 데이터링크를 통해 군함의 SM-2에 노출 된다. 이런 해·공군의 첨단전력을 통한 합동작전이야말로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사정거리 250km의 SM-6 함대공미사일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전투기를 띄울 공간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고도 북한 특작부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해상작전기지가 다량 보유된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이다. 우리는 이

59) Close Air Support, 근접항공지원.

런 경제적인 특권을 이용해 강력한 타격력과 대공능력을 보유한 군함들을 더욱 건조해야 한다. 초기 이 군함들의 활약으로 북한의 항공세력을 침묵시키고 전략 기지와 미사일기지를 타격 한 후, 최소 세력만 접적지역에 남긴 후 신속히 남하하여 북한 잠수함으로부터 우리 민간상선들을 보호하여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미군의 증원물자가 안전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하여 전쟁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핵에 대한 방어 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미 5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각계의 예상이 있다. 또 2012년 4월5일 발전용량 30만kW의 희천발전소를 청천강상류에 완공⁶⁰⁾하였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전기까지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군은 북한의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요격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형 중거리지대공미사일을 직접타격방식으로 개량하여 하층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과 함께 DDH-III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여 고층방어망을 구성한다면 우리나라는 핵미사일에 대해 두 번의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

3. 해역함대 전력

〈표 7〉 북한해군 함대함미사일장착 전투함⁶¹⁾

함정	보유수	배수량	주요무장
소호급	1척	1,640톤	스틱스4발, 100mm단장포1문, 37mm쌍열포 2문, 30mm쌍열포 2문
나진급	2척	1,500톤	스틱스2발, 100mm단장포2문, 57mm쌍열포2문, 30mm쌍열포 2문
소주급	10척	265톤	스틱스4발, 30mm쌍열포2문
청주급	6척	205톤	스틱스4발, 85mm합포1문, 37mm쌍열포2문
오사급	12척	210톤	스틱스4발, 30mm쌍열포2문
코마급	6척	85톤	스틱스2발, 25mm쌍열포1문
합계	37척		스틱스미사일 132발

60) 연합뉴스 2012년4월6일.

61) Jane's Fighting Ships 2007-2008 pp.435-438

〈표 8〉 북한해군 포장척, 어뢰장착 전투함⁶²⁾

함정	보유수	배수량	주요무장
사리원	4척	650톤	85mm전차포1문, 57mm쌍열포1문
하이난	6척	392톤	57mm쌍열포2문
태청1	7척	410톤	57mm쌍열포1문, 25mm쌍열포1문
태청2	5척	425톤	100mm단장포1문, 30mm쌍열포1문
소-1	19척	215톤	85mm단장포1문, 37mm쌍열포1문
상하이2	13척	131톤	37mm쌍열포2문
청진	54척	80톤	85mm단장포1문
차호	59척	82톤	21연장 MLR, 23mm쌍열포1문
신포	33척	73톤	533mm어뢰발사관2문, 25mm또는 37mm쌍열포1문
구성, 신흥	142척	42톤	457mm 또는 533mm 어뢰발사관2문
합계	342척		

해역함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위협을 억제해야 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북한 수상함을 격멸 시켜 대잠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전력이 필요하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해군의 전법은 일단 3개의 라인을 형성해 포진하게 될 것이다. 운영하급 미사일고속함(PKG)이 지휘하는 고속정대가 제일 앞줄에 서고, 그 뒤에는 포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호위함들이 원거리 포사격 지원을 하기 위해 배치된다. 제일 뒷줄에는 각 함대의 기함인 DDH-I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함께 기동전단에서 지원 나온 이지스함과 DDH-II구축함들이 배치되어 함대의 방공라인을 형성하면서 대잠작전을 겸할 것이다.

한국해군의 전법은 먼저 유도탄전, 즉 함대함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그러나 함대함미사일은 어떤 특정군함을 찍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씨커가 작동될 경우 먼저 탐지되는 수상표적을 공격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해군은 덩치가 큰 어선이나 화물선을 함대전면과 중간 중간에 섞어놓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RCS⁶³⁾가 큰 이런 화물선들로 우리 함대함미사일이 날아갈 확률이 크다. 반대로 북한해군이 보유한 스틱스함대함미사일⁶⁴⁾ 장착 함정 37척 중 생존한 군함들이 아군을 향해 스틱스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 방공함들이 요격에 나서겠지만, 100% 요격을 장담할 수는 없다. 탄두중량 513kg인 스틱스미사일을

62) 상계서 pp.437-438

63) Radar Cross Section, 레이더반사면적

64) 액티브레이더 or IR호밍, 최대사정거리 46km, 최고속도 마하0.9, 탄두중량 513kg HE탄

한발이라도 맞는다면 크기에 관계없이 함의 생존을 보장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유도탄전 이후로 쌍방의 거리가 20km 이내로 좁혀지면 함포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우리해군의 76mm함포와 127mm 함포는 사정거리 15~25km이며 전자식 사격통제장치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한 사격을 할 수 있다. 북한해군의 함포 중 이 정도 사정거리가 되는 포는 태청급의 100mm 포 정도인데, 사람이 수동으로 조준해서 쏘아야 하는 이 포를 가지고 20km 밖의 표적을 파도위에서 명중시킬 확률은 희박하다. 따라서 우리 해군이 약 15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뒤로 물러나며 탄막을 형성한다면 북한해군 군함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해군은 37척의 미사일 장착함들을 스틱스미사일의 사정거리인 46km 이내로 접근시키기 위한 다양한 작전을 구사 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북한 해군 중 이 37척의 스틱스미사일 함정들을 제거 한다면, 우리 해군은 1기 당 20억원씩 하는 비싼 함대함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북한해군을 궤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해군에는 북한의 미사일 장착함만 골라서 파괴시킬 방법이 없다. 그에 대한 해법이 바로 무인자살공격기인 하피2⁶⁵⁾이다. 하피는 적의 레이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발사하면 목표 상공에서 최대 6시간까지 선회하다가 레이더 신호가 감지되면 마치 급강하 폭격기처럼 탐지된 레이더 신호체로 내리 쫓혀서 레이더를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다. 1대의 발사 차량이 18기의 하피를 운용하는데, 사정거리가 500km나 되기 때문에 발사차량이 수백km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은 레이더를 쫓기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목표물이 레이더를 꺼버리면 공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IAI사는 이를 개량하여 하피2를 개발했다. 결정적인 차이는 ‘TV 시커(TV seeker)’ 장착 여부이다. 하피2는 레이더 신호뿐만 아니라 TV 시커를 통해 영상을 발사기지로 송신한다. 비록 레이더 신호가 잡히지 않더라도 무장관제사가 전송화면으로 확인해 레이더 기지라고 판단되면 공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피2의 이 같은 기능을 해군이 응용하면 북한과 함대 결전에 사용할 수 있다. 평택이나 동해 등 해군기지에 다수의 하피2 발사차량을 운용하며 북한과 함

65) 이스라엘 국영항공기회사(IAI)가 개발한 무인기. 목표물 상공에서 선회하다가 레이더파가 감지되면 급강하하여 공격한다. 하피2는 하피1에 없는 TV시커를 장착하여 목표물이 레이더를 끄더라도 화면을 기지로 전송하여 발사통제관이 수동으로 목표를 찾아 유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 결전이 시작되면 하피2를 발사해 TV 시커를 통해 전송되어 오는 영상을 보며 북한의 각종 미사일 고속정을 색출, 정밀타격 하는 전술이다. 북한의 미사일 고속정 1척 당 약 3발의 하피2를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8발 정도의 하피2만 있으면 되는데, 18발씩 운용하는 하피의 특성상 6대의 발사차량을 보유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미사일 고속정만 제거되면 그때부터 북한 해군은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것을 백령도나 연평도에 배치한다면 백령도 건너편에 위치한 북한의 해안 포대가 장비한 실크웜 미사일이나 KN-02미사일 등도 레이더를 쫓 수 없어 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동해에서 교전이 일어나는 경우 잠수함전이 아니라면 비슷한 상황을 대입시킬 수 있다. 하피의 가격이 50만 달러 이하인 것을 감안 할 때 하피2는 많이 잡아도 100만 달러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대함 미사일인 하푼은 약 12억원, 해성 대함미사일은 약 20억원 이상 이라는 점에서 하피2는 상대적으로 값싼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피2로 북한의 미사일 고속정들을 조기에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해군은 비싼 함대함 미사일을 사용하지도 않고, 원거리 함포전만으로도 북한 해군을 요리 할 수 있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해역함대는 북한수상함을 조기에, 신속하게, 안전하게 격멸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장비의 도입과 함께 평시 초계와 전시 포격전과 유도탄전을 수행할 해상플랫폼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다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기동함 대전력이 불특정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맡은 해역의 대잠작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잠전력이 있어야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일반국민들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받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함대기함 역할을 맡고 있는 DDH-1을 보조 할 수 있는 대잠함이 필요하다. 지난 천안함 폭침에서도 지적되었던 열악한 대잠시스템으로는 북한이 70여척이나 운용하는 잠수함정들에 대한 억제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없다. TASS(Towed Array Sonar System)와 대잠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대잠함이 다수 필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FFX 호위함들을 지속 건조하여 1함대와 2함대는 최소 9척을, 미래로 갈수록 중요성이 더욱 커질 3함대에는 최소 6척의 FFX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FFX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후기형으로 갈수록 대공 능력까지 더욱 강화된 함정으로 만들어 북한을 넘어 미래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KG 유도미사일 고속함은 최일선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역시 각

함대 당 최소 9척씩은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군함의 숫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운용중인 PKM 참수리고속정들이 퇴역하고 나면 그 공백을 메워 줄 후속함이 너무 적다. PKX-B 고속정은 접적해역인 1함대와 2함대는 함대당 최소 16척씩은 배치될 수 있어야 하고 제주해협을 비롯한 검문 수요가 많은 3함대에도 최소 12척을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전력을 해역함대가 가지고 있다면 북한이 오판을 할 확률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 해역함대가 강해야 기동함대의 활동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과감해 질 수 있다. 기동함대의 전력이 원하는 곳으로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역함대가 해당 해역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끔 전력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해군 전력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전력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전력이 급상승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표 9〉 한국해군 해역함대의 전력⁶⁶⁾

전력	1함대	2함대	3함대
KDX-1 or KDDX ⁶⁷⁾	1척	1척	1척
FFX	9척	9척	6척
PKG	9척	9척	6척
PKX-B	16척	16척	12척
하피2	54발	54발	

4. 기동함대 건설

해군 제7기동전단은 3척의 DDH-III 이지스구축함과 6척의 DDH-II구축함 등 총 9척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청해부대 소요로 2척이 상시 빠지게 되고 해사순항훈련이나 림팩훈련 등 장기간 해외원정 등이 겹친다면 국내에서 가용한 구축함 숫자는 이지스함 포함하여 3~4척에 불과할 것이고, 이지스함이 호위함 없이 작전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

66) 필자의 희망일 뿐, 해군의 현재전력이 아니며 해군의 계획된 사항도 아님. 이하 한국해군 전력 도표는 모두 동일한 성격임.

67) 한국형 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된 5,000톤급 차기구축함. 언론에 KDX-2A로 보도된 기종을 KDDX라 함.

사시 육군·공군에 대한 지원과 주변국 해군에 대한 억제력은 고사하고 북한해군의 조기격멸 마저도 보장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과의 해상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과 일본의 해군전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만 오직 대북전력 확충에만 매달리다가는 통일 후 해양 분쟁에 대비한 전력건설에 실기하여 우리의 이익과 자존심을 고스란히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대북전력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여건과 안보여건상 주변국을 대비한 전력에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 그 대안이 바로 기동함대다.

기동함대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기동전단은 KDX-3 이지스함 1척을 기함으로 하고, KDX-2 구축함 2척씩, 그리고 한국형 위상배열레이더가 탑재되어 準이지스급의 성능을 보유하는 KDDX구축함⁶⁸⁾ 3척 등으로 하는 총 6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3개의 기동전단은 유사시 동해와 서해로 급파되어 해역함대와 함께 북한해군을 격멸함과 동시에 육상 내륙까지 아우르는 광역 대공방어망을 펼치고 함대지순항미사일로 북한의 핵심전력을 타격하여 공군과 육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여서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남해의 안전을 보장하여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또한 서해에서 중국의 북해함대가 접근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남해에서는 중국의 동해함대가 북한을 돕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다. 중국해군의 항공모함전단과 조우할 경우 함대피전 전략으로 결전을 회피하고 접근을 거부하며 다른 기동전단이 올 시간을 벌다가, 추가로 다른 기동전단들과 연합하여 함대결전을 벌일 수 있는 전력이 된다면 오히려 중국해군이 항공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함대피전을 택해 물러날 것이다.

만약 유사시 중국의 항공모함전단이 서해와 남해에 접근한다면 우리 공군은 DCA⁶⁹⁾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항공력은 급감하게 되고 육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CAS) 제공과 전략거점 타격 등에 집중 할 수 없어 전쟁은

68) 전자식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여 KDX-3 이지스함 정도의 대공탐색·추적·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저주파소너를 장착하여 대잠 탐지능력을 극대화 하고, 최소 64cell의 한국형VLS를 탑재하여 32발 정도의 SM-2급 대공미사일, 8발 정도의 홍상어, 24발 정도의 함대지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8~16발의 해상 함대함미사일을 탑재하여 대공·대잠·대지·대수상전 모두를 훌륭히 치를 수 있는 군함이여야 한다.

69) Defensive Counter Air, 방어제공

더욱 길어지게 되고 군과 민간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항공모함전단의 접근을 거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최소화한 피해로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전력은 바로 해군의 기동함대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상황 뿐 아니라 이어나 독도 등지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전단과 일본의 호위대군과 긴장감을 조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기동전단들은 해역이 넓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신속하게 집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전력은 부족하더라도 18척 정도의 구축함으로 만든 기동함대라면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18척의 구축함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과의 유사시 공군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지상작전의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민간경제활동을 지켜주는 기동함대 건설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억제력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표 10〉 한국해군 제7기동함대 전력

전력	71기동전단	72기동전단	73기동전단
KDX-3	1척	1척	1척
KDDX	3척	3척	3척
KDX-2	2척	2척	2척
합계	6척	6척	6척
장착된 함대지순항미사일 ⁷⁰⁾	136발	136발	136발

5. 잠수함사령부 전력과 항공전력 · 상륙전력

① 잠수함사령부 전력

한국해군은 기존의 제9잠수함전단을 2015년에 잠수함사령부로 확대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잠수함

70) KDX-3 각 32발, KDDX 각 24발, KDX-2는 한국형VLS 업그레이드를 통해 각 16발 장착하는 것으로 계산.

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상함 전력을 만회하고 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유사시 적의 심장부를 보복타격 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되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잠수함은 운용이 어렵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해군을 가지고 있다해도 모든 나라가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 해군은 현재 돌고래급 잠수함 2척을 포함해 14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도 수량으로는 세계 제7위가 될 정도로 잠수함은 고가치의 전략자산이다.

(표 11) 세계잠수함 보유순위⁷⁾

순위	국가	수량	비 고
1	미국	74척	전부 원자력추진잠수함
2	러시아	70여척	대부분 원자력추진잠수함, 노후화
3	북한	70여척	
4	중국	64척+	원자력추진잠수함 13척 포함
5	일본	20척	훈련잠수함 2척 포함, 매년 1척씩 건조
6	인도	18척	원자력잠수함 보유시작
7	영국	14척	전부 원자력추진잠수함
7	터어키	14척	전부 209급 잠수함
7	한국	14척	돌고래급 2척, 209급 9척, 214급 3척
10	독일	12척	212급 4척, 206급 8척
11	프랑스	11척	전부 원자력추진잠수함
12	이란	9척	연어급 3척보유
13	파키스탄	8척	1500톤급 5척, 118톤급 3척
13	그리스	8척	209급 8척, 214급 4척 보유계획포기
15	이태리	7척	212급 2척, SAURO급(1476톤) 5척
16	호주	6척	모두 3,000톤급 대형 디젤잠수함
16	노르웨이	6척	ULA급(1,040톤)
16	페루	6척	209급
16	싱가폴	6척	1,130톤급 4척+1500톤급 2척
16	스웨덴	6척	잠수함 독자개발(1척은 침투용)
21	브라질	5척	프랑스와 원자력잠수함 도입 논의 중
21	스페인	5척	1490톤(AGOSTA급)4척+S80급1척(총4척계획)
21	폴란드	5척	459톤 4척(1960년대産)+킬로급 1척

7) 자주국방네트워크 '세계 잠수함 보유수량 순위와 한국해군' 2010년8월10일

순위	국가	수량	비 고
21	몬테니그로	5척	830톤급 1척, 76톤급 3척, 615톤급 1척
25	캐나다	4척	2,168톤 빅토리아(Upholder)급
25	이집트	4척	로미오급 4척
25	네덜란드	4척	2,465톤(Walrus급)
25	콜롬비아	4척	209급 2척 + 58톤급 2척(1973년산)
25	대만	4척	2,376톤 2척+1,870톤(1945~6년산)2척
30	이스라엘	3척	212급 기반의 돌핀급. 2척 추가건조 중
30	남아공	3척	209급
30	포르투갈	3척	209급 2척+869톤(1968년산) 1척
30	아르헨티나	3척	산타크루즈급(2,116톤)+209급 1척
34	리비아	2척	1,950톤(러시아 프로젝트 641급)
34	알제리	2척	킬로급 2척
34	인도네시아	2척	잠수함 구매 사업 추진 중
34	말레이시아	2척	1,577톤 프랑스產 Scorpen급(2009년산)
34	에콰도르	2척	209급
34	베네수엘라	2척	209급
34	칠레	2척	209급
34	베트남	2척	유고급 2척, 러시아제 킬로급 6척 도입계약
42	우크라이나	1척	1950톤(러시아 프로젝트 641급, 1970년産)
42	불가리아	1척	로미오급 1척(1961년산)

〈표 11〉에서 보듯이 세계에서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불과 42개 국 뿐이다. 우리나라도 수량으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의 주변국들이 세계1위~5위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해군은 주변 6개국 중에서 꼴찌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계7위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와 관계가 있는 나라들 중 꼴찌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잠수함 수량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해군이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3000톤급 잠수함인 한국형잠수함(KSS-3)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추가로 퇴역하는 돌고래급을 대체하고 수심이 얇은 서해에서 작전할 수 있어서 북한 해군 잠수함기지를 원천 감시할 수 있고, 중국해군의 서해활동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500톤급 잠수함도 6척 정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500톤급 잠수함의 건조가 3000톤급 잠수함의 수량과 대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해군의 잠수함사령부는 209급 잠수함이 퇴역한 후 궁극적으로 214급 잠

수함 9척, 3000톤급 잠수함 9척, 500톤급 잠수함 6척 체제로 간다면 대북억제는 물론 우리의 주권수호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크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표 12〉 한국해군 제9잠수함사령부 전력

전력	91전단	92전단
214급 잠수함	9척	
3,000톤급 잠수함		9척
500톤급 잠수함	6척	
합계	15척	9척

② 항공 전력과 상륙 전력

해군의 항공 전력은 주로 대잠작전을 위주로 한다. 최근 상륙기동헬기 40대의 사용주체를 놓고 해병대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해군항공 전력의 핵심은 대잠작전의 기동화라 할 수 있다.

현재 16대가 있는 고정익 대잠작전기는 향후 추가도입이 어려울 것이다. P-3C 생산라인 자체가 폐쇄되었고 중고를 8대 추가 도입하여 개량한 P-3CK와 같은 방식도 미국의 항공기 무덤인 에리조나의 사막에 쓸 만한 치장 물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P-3C를 대량 운용하던 대표적인 두 나라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제트엔진을 탑재한 신형 대잠항공기를 개발하였는데 미국은 P-8A 포세이돈⁷²⁾, 일본은 Kawasaki P-1을 개발하였다. 독자의 고정익 중형항공기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잠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은 힘들고 규모면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향후 장기적으로 P-3C의 임무 중 해상초계 임무는 서서히 해경에게 넘겨주고, 해군항공은 대잠헬기를 다량 확보하여 해역함대의 주전력이 될 FFX와 함께 대잠경계작전을 상시 펼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

미국은 현재 추진 중인 차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에서 MH-60R헬기를 해군이 책정한 예산보다 두 배가량의 액수를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해군은 국산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인 대잠헬기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가 KSS-3 사업의 소나체계를 개발 중이므로 이와

72) 미 국방성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의 가격이 4억4천만달러로 나와 있다.

따라서 제트엔진의 고정익 대잠초계기의 추가도입이나 독자개발은 예산상의 제약이 심대할 것이다.

연계하여 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대잠장비의 개발도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규모면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본다. 또 너무 고가인 EH-101, NH-90, MH-60등에 비해 가격은 적당하지만 덩치가 작아 작전능력이 제한되는 Lynx등으로 국한되는 대잠헬기 시장에서 적당한 가격에 긴 작전시간과 소노부이 운용능력을 가진 대잠헬기를 만든다면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 해군은 SLAM-ER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여 서해를 초계하는 P-3C에 장착할 필요가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북한이 추후 또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 SLAM-ER을 장착하고 초계하고 있지만, F-15K는 P-3C에 비해 작전시간이 짧고, 서해 쪽을 상시초계 할 수 없다. 이에 하푼 미사일 운용능력이 있는 P-3C가 하푼의 개조형인 SLAM-ER을 장착하고 서해를 상시초계 한다면 북한은 더 이상 연평도포격도발과 같은 충격적인 물리적 도발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해병대 1사단을 한국해군 독자적으로 상륙 시킬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해군은 독도함과 고준봉급 LST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능력으로는 1개 연대도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LST-2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여단급 상륙능력 정도는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독자적인 사단급 상륙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사업 진행 중인 전력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LPX-2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07년 취역한 LPX 독도함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1층에 불과한 격납고 때문에 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동시에 많이 탑재할 수 없다. 따라서 LPX-2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나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처럼 2층의 격납고를 만들어 1층에는 장갑차나 전차같은 지상장비를 탑재하고, 2층격납고에는 헬기와 관련시설을 탑재하여 상륙전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V. 결론

한국해군은 북한의 점점 심해지는 위협에 더해서 불리하게 변화되는 안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신국방정책에 의해 7함대 전력의 공백이 예상되고 중국해군은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변함없이 강한 전력을

꾸러나가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으며, 수중과 수상에서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예상되는 여러 위협들은 먼저 북한과의 전면전과 이 전면전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이다. 또 저장도 분쟁만 하더라도 북한의 지속적인 NLL 무력화 책동,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해군이 넘어야 할 파도는 너무나 많고도 높다.

해군전력은 마음먹는다고 즉시 생기는 전력이 아니다. 새로운 군함 한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 대한 직시 속에 미래를 내다보며 전력을 기획해야 한다.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획득과 그 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인원확충 등 국민과 정치권 뿐 만 아니라 군내에서도 합의와 양해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현대의 해군력은 과거처럼 제해권만 확보하여 보급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활동 보장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방공임무와 적 핵심시설 타격 등으로 공군과 육군의 운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해군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 예산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나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육군과 공군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고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으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예상되는 주권위협에 대비하여 해역함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기초를 튼튼하게 한 후에 기동전단을 3개로 확대하여 기동함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기동함대의 이지스함들은 탄도탄요격능력을 갖추어 북한의 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이 기동함대는 중국과 일본이 이어도와 독도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게 만드는 소중한 전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의 마지막 편치가 될 잠수함사령부 전력 구성에 대한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한 항공전력을 더욱 확충하여 북한과 주변국의 잠수함으로부터 우리의 해상수송로를 지켜내야 한다. 해병 1개 사단을 우리 해군 독자적으로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보유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더불어 꼭 필요한 사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군은 더욱 투철한 국가관과 충성심으로 전술전기를 연마하면서 해군력 강화를 홍보해야 한다. 국민과 타군은 해군력의 발전이 군 전체전력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해군력 발전을 지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전시에는 육군·해군·공군이 힘을 합쳐 전쟁을 수

행하지만 평시에 발생할 소지가 높은 해양에서의 국가주권 침해는 해군만이 나설 수 있을 뿐이다. 이 때 우리 해군에 대한 평소 이해의 부족으로 해군력 건설에 소홀했다면 우리는 100년 전과 같은 치욕을 또 보지 마란 법이 없다. 든든한 해군력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0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1
Jane's Fighting Ships 2007-2008
미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index.asp>
국방백서 2010
신인균 外.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우리해군의 대응전략 및 전력발전 방향. 2011 中國大陸研究, 제 40권, 제9기. 中共海軍戰略續進之研究 陳永康. 1997년 9월호
미 국방성 중국군사력 연례보고서 2011
The Journal of East Affairs, VI권, No.1, Winter/Spring 1997
프레드릭 벨루치 Jr. 중국해군의 증강과 한미해군 협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술총서 49. 2009년
Globalsecurity.com
자주국방네트워크
김중섭 外. 일본의 해상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박재권. 세계군사용어사전
신인균. 독도의 실효적 지배 유지방안. 2008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자료. 정희석(새누리당) 의원실. 최구식(무소속) 의원실
신인균 外. 주권 위협수역 방어를 위한 해군전력 건설 및 민·군 협력방안. 2011 미 국방성 2012년 예산안
世界の艦船. 2008년 6월호
軍事史林. 1992년 3월호
뉴데일리. 2011년 8월 26일
아주경제. 2011년 11월 29일
조선일보. 2011년12월6일
헤럴드경제. 2011년8월10일 2면2단
중앙일보. 2012년5월21일 12면2단

뉴스스. 2007.12.18
조선일보. 2011년 12월 15일
국민일보. 2011년 12월 8일
국민일보. 2011년 12월 8일
서울신문. 2011년 7월 9일
한국경제. 2006년 4월 19일
노컷뉴스. 2006년 4월 19일
서울신문. 2011년, 8월 3일
한국일보. 2011년, 8월 2일
한국일보. 2006년 4월 20일
YTN. 2011년 8월 4일
연합뉴스. 2012년4월6일

Abstract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the ROK NAVY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Sovereignty

73) Shin In-Kyun*

With the increased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the South Korean navy has been faced with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While North Korea ha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 the maritime and underwater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China and Japan have made a large investment in the buildup of naval forces, the power of the Pacific fleet of the US, a key ally is expected to be weakened.

The biggest threat comes from China's intervention in case of full-scale war with North Korea, but low-density conflict issues are also serious problems. North Korea has violated the Armistice Agreement 2,660 times since the end of Korean War, among which the number of marine provocations reaches 1,430 times, and the tension over the NLL issue has been intensifying.

With tension mounting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sue and conflict escalating with China over Ieodo Islet, the US Navy has confronted situation where it cannot fully concentrate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leads to need for strengthening of South Korea's naval forces.

Let's look at naval forc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 is

* Representation, Korea Defense Network

threatening South Korean navy with its increased asymmetric forces, including submarines.

China has achieve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naval forces since the promotion of 3-step plan to strengthen naval power from 1989, and it now retains highly modernized naval forces.

Japan makes an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state of the art warship every year. Since Japan's warship boasts of its advanced performance, Japan's Maritime Self Defense Force is evaluated the second most powerful behind the US Navy on the assumption that submarine power is not included in the naval forces.

In this situation, naval power construction of South Korean navy should be done in phases, focusing on the followings;

First, military strength to repel the enemy warship quickly without any damage in case of battle with North Korea needs to be secu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bilities to discourage the use of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and attack its nuclear facilities in case of emergency. Third,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to suppress armed provocations from China and Japan is required.

Based on the above naval power construction methods, the direction of power construction is suggested as follows. The sea fleet needs to build up its war potential to defeat the naval forces of North Korea quickly and participate in anti-submarine operation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 task fleet should be composed of 3 task flotilla and retain the power to support the sea fleet and suppress the occurrence of maritime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submarine power, a high value power asset in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submarine headquarters in 2015, develop anti-submarine helicopter and load

SLAM-ER missile onto P-3C patrol aircraft. In case of maine corps, division class military force should be able to conduct landing operations.

It takes more than 10 years to construct a new warship.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lans for naval power construction carefully in consideration of reality and future.

For the naval forces to safeguard maritime sovereignty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the acquisition of a huge budget and buildup of military power is required. In this regard, enhancement of naval power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understanding and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let the nation know that modern naval forces with improved weapon system can serve as comprehensive armed forces to secure the command of the sea, perform defense of territory and territorial sky and attack the enemy's strategic facilities and budget inputted in the naval forces is the essential source for early end of the war and minimization of damage to the people.

If the naval power construction is not realized, we can be faced with a national disgrace of usurp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f 100 years ago.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of naval forces must be realized.